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와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무료 세금 신고 옵션을 축소할 세금 환급 준비 회사의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와 뉴욕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터보택스(TurboTax), 에이치앤알 블록(H&R Block) 및 기타 주요 세금 환급 준비 회사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이러한 회사들이 구글(Google) 광고 및 웹사이트 기능을 이용해 무료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저소득 개인들에게 추가 세금 신고 옵션을 숨겼다는 최근 보고에 따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텍스 환급 준비 회사들에 대한 혐의는 충격적이며, 뉴욕은 부유한 기업의 수익을 채우기 위해 대중의 이익을 손상하는 일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 주민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와 뉴욕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이러한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에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책임자들은 이러한 중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조정된 총소득이 66,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세무 소프트웨어 제공자 및 뉴욕을 포함한 주들 간의 파트너십인, 무료 신고 제휴(Free File Alliance)를 통해 무료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세금 소프트웨어 제공자들의 웹사이트는 고객들이 무료로 세금을 신고할 자격이 있을 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했고, 구글(Google) 검색에서 이러한 무료 신고 옵션을 숨겼습니다.

뉴욕의 소비자 보호 계획

Cuomo 주지사의 행정부 아래, 뉴욕은 주 전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와 입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3월, 주지사는 채무 회수 회사들이 상환을 위해 친척들을 압박했다는 보고에 따라 사망한 채무자와 그 가족들에게 채무 회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채무 회수 회사들은 가족의 부채 상환 의무에 대한 어떠한 허위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또한 페이스북(Facebook)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몰래 접근했다는 보도에 따라 인기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육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2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및 기타 주정부 기관에 이러한 보고서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연방 규제 당국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월, 주지사는 사용자가 전화를 받거나 거부하기도 전에 전화를 건 사람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된 애플(Apple)의 페이스타임(FaceTime) 앱 버그에 관하여 뉴욕 주민에게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Letitia James 법무장관과 협력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으며](#), 뉴욕 주민들에게 뉴욕주 소비자 보호부(Department of State's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에 연락하여 소비자 불만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2020년 회계연도 제정 예산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뉴욕 주민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가 받은 회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보호책은 다른 중요한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법규는 어떤 학자금 대출 담당자도 대출자를 오도하거나 어떠한 약탈 행위 및 관행에 가담하거나, 대출금 지불을 악용하거나, 신용 평가 기관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노출한 에퀴팩스(Equifax)와 같은 신용 평가 기관의 데이터 위반을 계기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에서 중요한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 금융서비스부(DFS)에 처음에 등록하고 뉴욕의 국가 최초의 사이버보안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발행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금융서비스부(DFS) 감독관은 또한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이 특정하게 금지된 관행을 어길 시, 뉴욕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 및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거부, 일시 중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